

통권 제 239호

강남. 라 00943

2567
2023

09

원정 대상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16
세상을 향한 빛



불교이야기
2



동행
목계지덕의
교훈 이야기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불교충지중

요행과 우연은 본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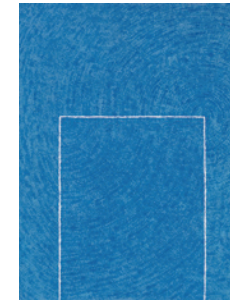
자기의 미래는 자기의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다. 이 귀중하고 소망스러운 자기의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



살다보면 _32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_ 이옥경



지장 스님의 향유 _38

마음의 여백
_ 지장 스님



십선성취 _58

소유하는 행복,
나누는 기쁨

_ 남해 정사

- 04 원정 대성사 일대기
- 12 불교이야기
- 18 마음챙김 메커니즘
- 22 경전에서 찾은 지혜
- 25 문화재 해설
- 28 우리절 노래꽃
- 30 산책
- 32 살다보면
- 38 지장 스님의 향유
- 43 마지막 공부
- 46 마음의 등불
- 48 동행
- 52 씨앗 한 알
- 54 지혜의 뜨락
- 58 십선성취
- 62 속담으로 보는 불교
- 66 나만의 빛, 모두의 빛
- 70 금쪽상담소
- 72 서원당 안의 불교
- 76 가로세로 만다라세상
- 78 법회일정

- 불공 잘해라 - 세상을 향한 빛 - 김천
- 업 이야기 2 - 화경 정사
- 업 - 임진수
- 독실한 정진은 복보도 빠르다 - 불교총지종 법장원
- 우마, 자애로운 여신의 미소 - 워드드라마 편집실
- 찬미의 나라 - 묘원화 전수
- 뭐지 - 김대곤
-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 이옥경
- 마음의 여백 - 지장 스님
- 나도 그러한가 - 유소림
- 가을밤의 단상 - 강만문
- 목계지덕의 교훈 이야기 - 탁성달
- 울타리를 벗어나라 - 법상 스님
- 진정한 명품 - 방귀희
- 소유하는 행복, 나누는 기쁨 - 남해 정사
-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 김성철
-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 한국전통등연구원
- 우리 아이 양육 길라잡이 -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연합회
- 금강계만다라 - 해광 정사

워드 다르마

영원한 진리와 함께
With Dharma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워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총지종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의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미국의 소설가 ‘너대니얼 호손’은 작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삶은 녹록치 않아 지인의 도움으로 세관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해고되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라 그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호손은 너무 많은 걱정과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호손의 아내는 근심이 가득한 남편의 얼굴을 보고 부드럽고 편안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의 표정을 보니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 혼자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몇 배나 더 힘들고 괴로움을 느껴요.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저를 위해서라도 말해 줄 수 있나요?”

아내의 말에 호손은 실직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호손은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수그렸는데

아내는 웃으며 호손 앞에 펜과 잉크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글을 쓰지 못했어요. 지금부터는 마음 놓고 쓰고 싶은 글을 쓰세요. 당신의 재능이라면 훌륭한 작품을 남길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글을 쓸 수 있게 된 호손은 19세기 미국 사회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꼽히며 가장 많이 읽는 소설 중의 하나인 ‘주홍글씨’를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노력과 재능뿐만 아니라, 아내 소피아의 현명한 이해와 응원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담긴 따뜻한 격려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을 만큼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뜻한 하루의 <따뜻한 감성편지 2023년 7월 10일 자>

불공 잘해라 세상을 향한 빛

김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를 졸업
저서 '시대를 이끈 창종자'
'인생탈춤-태허 홍선 평전' 등



원정 대성사는 경전의 편찬과 역경을 통해 한국불교에 밀교를 처음으로 알렸으며, 1972년 한국의 밀교 대표 종단 불교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면서 '즉신성불即身成佛'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했습니다. 2021년 창종 50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 '불공 잘해라'에 담긴 대성사의 삶과 가르침을 위드다르마에서 특별연재로 소개합니다.

10화 - 새로운 길 3

자비 교단이라는 불교에서 무자비한 일들이 줄을 잇고, 심지어 수행자의 폭력과 자해행위가 호법의 가면을 쓰고 벌어졌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세상은 불교교단의 정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절 뺏기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부처님 가사 장삼을 입고 폭력이 벌어지는 일은 시대의 비극이다.

불교를 보는 세상의 시선은 냉소로 변해가고 있었다. 수행자를 폭력을 앞세우는 이들로 보고, 불법은 잣밥 차지하기로 보는 차가운 눈길이 몰려왔다. 그와는 확실히 다른 가르침을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커졌다.

이전과 다른 불교가 여기에 있었다. 누구나 생활이 수행이 되고 생활을 통해 진리가 드러나는 가르침이 있다는 소식은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대립이 아니라 조화이며, 폭력이 아니라 안과 밖의 평화가 있는 가르침을 밀교를 통해 드러낸 것은 대성사의 한결같은 신념의 결과였다. 대성사는 대소승과 다양한 종파, 복잡한 수행의 단계에서 왜 밀교가 가장 높고 궁극적인 가르침인지를 이렇게 밝혔다.

“밀교는 최상승最上乘 또는 금강승金剛乘이다. 완전히 조화를 이룬 세계의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실현이다. 본능에만 따르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동물적인 생활이나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생활에서부터 윤리와 도덕을 배우고 행동하는 단계를 거쳐 인간의 의식과 자연현상을 되짚어 절대 조화에 도달하는 것이 밀교이다. 그러므로 밀교에는 가장 낮은 욕망과 가장 높고 거룩한 이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가진 곳에 있으면서 전체가 일대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마치 악기로 치면 대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과 같다. 날날이 따져 들으면 잡음이나 조화롭지 못한 소리가 들려도 일체가 오케스트라의 요소인 것이다.”

혹 교도나 세상 사람이 비구·대처 분쟁을 빌미로 불법을 낮춰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때면 대성사는 이 같은 말로 조용

히 타일렀다. 현실에서 불협화음이 들리더라도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갖추라고 당부했다. 진리만을 보기에다 버거운 것이 짧은 인생의 일이니, 부질없는 잡음에 크게 마음 쓰지 말라는 것이다.

기성 승단의 불협화음을 들으면서 밀교에 대한 대성사의 믿음은 더 굳어갔다. 홀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 수행의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경전 내용과 의궤를 찾고 펼쳐 보였으며 스스로 생활 속에서 드러내 보이니 교단 안에서 신임은 깊어졌고 교도들이 대성사의 가르침에 의지하는 바가 더 커지고 있었다.

대성사는 법문을 할 때나 심인당에서 교인을 대할 때, 경전을 번역할 때도 한결같은 모습을 잃지 않았다. 진실된 말이 아니면 입에 담지 않았으나, 늘 웃음과 유머를 잃지 않았다. 상대를 꿰뚫는 강한 눈빛에 처음 보는 이들이 모두 굳었으나 한두 마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빙그레 웃는 모습에 대성사의 진면목을 알게 된다고 했다. 어린 사람이나 나이든 이를 똑같은 자세로 대하였다.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 나이든 이들이 혹 교리를 이해하지 못해 엉뚱한 질문을 할 때도 그가 알아들을 때까지 진심을 다해 말을 이어갔다. 같은 질문을 수없이 해도 웃음을 거두지 않았다.

누구나 대성사를 만나면 첫째는 엄숙함에 기가 죽고, 둘째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자상함에 마음이 풀렸다고 한다. 교인을 대하는 자세는 자기 수행의 과정과 결과일 뿐 아니라, 몸과 마음과 말이 진실에 다가선 증거가 된다. 세상 사람은 스승의 말과 행동을 통해 진리에 다가설 수 있고, 거짓에 절망할 수도 있다. 한쪽에서 불교를 내세우며 전쟁을 벌일 때 대성사는 오롯이 진실한 모습으로 세상에 밀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교인들의 질문은 비단 교리와 수행에 대한 것에 국한되지 않았다. 누구나 다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심인당을 찾았다. 늘 한결같이 “불공 잘 하면 감응을 얻는다.”고 답했지만, 반드시 종교적인 가르침만 준 것은 아니었다.

마음에서 일어난 번뇌는 마음잡는 길을 알려줬다. 세상살이의 고난은 일체가 무상하며 상황과 조건은 언제나 변한다는 사실을 자신의 경험을 들어 세세히 설명했다. 미움으로 분노하는 이들에게는 육자진언으로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얻는 길을 알려주었다. 누구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알아듣도록 이야기했으니 대성사를 만나 말하는 것만으로도 얽힌 마음의 가시풀이 사라짐을 느낄 수 있었다. 차츰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다. 스승들도 심인당의 운영과 교도를 대할 때 어려움이 생기면 대성사를 찾아와 속을 털어놓았다. 어떤 경우에도 싫은 기색을 보이

지 않고 진심을 다해 자신이 아는 바를 나누었다. 당시 대성사로부터 길을 찾은 이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었다.

“평범한 이야기같으나 남이 보지 못한 길을 알려주셨다.”

“어렵지 않게 일상적인 말로 깊이 있는 세계를 전해주셨다.”

가르침의 가피를 입은 이들의 공통된 기억이다. 그 전하는 방법이 샅되거나 경전을 벗어나거나 확신 없는 말이 아니라 듣는 즉시 매듭이 풀리는 경험이었다고 한다. 한 번 들으면 모든 의문이 풀리는 확실한 법문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말은 쉬우나 길을 여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누구나 자기 앞에 막힌 길이 있으면 ‘대성사를 찾으면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게 됐다. 삼밀의 가르침은 경전 속 내용이 아니라 현실에서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실체가 됐다.

경전 번역과 의궤의 제정, 그리고 스승들에 대한 교육에 전념하고 있을 때 종단의 미래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큰 결정이 내려진다. 당시 진각종은 종단의 최고 지도자를 ‘널리 가르침을 펼친다’는 뜻으로 선교^{宣敎}의 칭호로 불렀다. 초대 선교는 회당 대종사이다. 명실공히 종단을 이끄는 최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이가 진각종 선교이다. 종단이 점차 안정기를 지나 발전



진각종 개혁을 추진하던 1970년 진각 종조전 앞

기에 들어서면서 조직은 커졌고 한 사람이 행정과 교법을 모두 통솔하기보다 이원적인 체제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인 선교 위에 상징적으로 교법의 대표 격인 인정^{印定}이란 지위를 새로 만들었다. 인정은 심인^{心印}의 인정^{認定}을 뜻하는 말이다. 현교 교단의 종정^{宗正}에 해당하는 지위이다.

1957년 11월 18일 대성사는 진각종 선교로 추대된다. 전쟁 중 입교하여 그야말로 이른 시일 동안 교단의 기틀을 잡고 교리를 정비하는 일에 헌신한 결과를 종단 안팎에서 공인한 결과이다. 1955년에 정사로 승진한 후 2년 만의 일이니 대성사에 거는 종단의 기대를 읽을 수 있다. 종단의 크고 작은 일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교당을 세우는 건축 불사까지 대성사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오랜 공직 생활과 꼼꼼한 성품 탓에 장부를 살펴 작은 허점도 용납하지 않았다. 실수나 잘못이 드러나면 당사자를 힐난하기보다 그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 잘못을 공덕으로 회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일하는 이들로부터 원망 사는 경우가 없었다. 당시를 회상하는 이들은 장부를 펼쳐 눈길만 스쳐도 잘잘못이 드러났다고 한다.

종단 일을 하다 보면 대성사에게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자주 겪게 된다. 대성사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상대에 휘둘리며 자기 운명과 이해를 남에게 맡기지 말라는 말로 타일렀다. 어느 누군가의 행동으로 자기 마음의 혼란과 신앙의 곡절을 겪게 된다면 시비로 진리를 훼손하는 일도 생긴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떤 일에도 공평함을 잃지 않았고 잘못은 적절한 방법으로 바로 잡았다. 한 번 잘못을 저지른 이도 그 경과에 따라 다른 책임을 주어 잘못을 만회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종무를 이끌어 종단의 성장을 탈 없이 주도했던 것도 선교로서 대성사의 업적이었다. 이로써 교단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겪을 수 있는 잡다한 시행착오를 건너뛰고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전국 심인당 건설도 대성사의 관리로 여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중에도 교리와 수행체계의 정비에 특히 힘을 기울였는데, 무엇보다 밀교 의식을 정하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의식과 의례가 밀교의 생명이며 비밀한 힘을 체험하는 핵심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의식이 없는 밀교란 현교와 다를바 없다는 것이 대성사의 지론이다.

“밀교란 의식을 주로 한다. 의식이란 특정한 시기에 다른 질서가 지배하는 그것이 의식이요 제전^{祭典}이다. 또 특정한 장소가 일반의 장소와 구별되는 것도 종교의 특색이다. 예를 들면 도량, 불단^{佛壇} 등과 용구^{用具}, 언어, 행동 등이 구별되어 일상생활과 달라서 시간^{時間}, 공간^{空間}, 물체^{物體}, 동작, 언어 등이 성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상대하여 일상생활을 세속적^{世俗的}이라고 하고, 순불교적인 생활을 출세간적^{出世間的}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법계의 감응이 있으려면 밀교 의식이 제대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밀교의 각종 불공법과 의례, 그리고 진언의 규정은 대성사가 현대 한국 밀교 의식을 기초부터 쌓아 올린 대표적인 성과이다.

업 이야기 2

화령 정사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보디미트라 회장

현대 과학자들은 인류의 불평등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들은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러한 불평등을 화학 물리적 원인, 유전 및 환경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DNA라는 것이 인간의 모든 형질을 결정하는 주원인이라고 봅니다. 즉 유전자에 의하여 인간의 미추가 결정되고 성격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유전자의 조작에 의하여 인간의 모든 형질과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과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유전자들은 유전자 조작에 의하여 동물을 복제해 내기도 하고 다른 형태의 동물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사람도 유전자에 의해 부모의 특질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닮기도 하고 형제간에도 많이 닮습니다. 가끔 좀 다르게 생긴 자식이 태어나기도 하지만 친가나 외가 쪽을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 그런 형질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물며 일란성 쌍둥이라도 어릴 적 헤어져 완전히 다른 삶을 살다가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DNA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화학적 물리적 현상이 부분적으로 인간의 태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개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차이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유전자에 의하여 가족 간에 신체적으로 비슷하고, 같은 환경 아래에서 양육되어도 다른 성격에 다른 삶을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같은 형제라도 누구는 선량하고 누구는 포악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전만으로는 이러한 엄청난 차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대부분의 차이점보다 약간의 유사점을 더 그럴듯하게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부모의 정자와 난자는 인간의 일부, 즉 신체적 기초만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복잡하고 미묘한 정신적, 지적, 도덕적 차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더 많은 원인을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전 이론만으로는 훌륭한 가문에서 흉악한 범죄자가 나오기도 하고 미천한 가계에서 성인이 나오는 등의 설명을 하기에 미흡합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예능에 소질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현저한 폭력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선량한 부모 밑에서 온순한 아이가 있는 반면 한 아이는 형제를 괴롭히는 난폭한 아이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흥부 놀부 이야기처럼 같은 형제

라도 성격은 매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오직 유전자만으로 해석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불교적 관점으로는 이러한 차별상을 유전, 환경 등 겉으로 드러난 요인뿐만 아니라 운명의 향방에는 업의 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같은 형제라도 각기 다른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이 물려받은 과거의 행동과 현재의 행동의 결과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마 니까야(중아함경)』에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수바(Subha)라는 젊은 구도자가 붓다에게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은 장수하고 어떤 사람은 단명하며 어떤 사람은 병약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며 어떤 사람은 못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우며 어떤 사람은 약하고 어떤 사람은 강하며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이며 어떤 사람은 하천하며 어떤 사람은 고귀하고 어떤 사람은 우둔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붓다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중생은 자신의 업(까르마)에 따라 선천적 환경을 지니고



태어난다. 천하고 귀한 것은 모두 업의 구분에 따른 것이다.”

붓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과율에 따라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생명을 파괴하는 사냥꾼이어서 그의 손에 피를 묻히고, 죽이고 상처를 입히고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그는 그 죽음의 결과로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에 단명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과 불행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업이 우리의 태생의 기본을 형성하고 또 매 순간 이어가는 업의 작용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괴로운 것으로도 행복한 것으로도 만들어 갑니다. 『담마빠다(법구경)』에도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업을 짓는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괴로움도 만들고 즐거움도 만들어 갑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지어 놓은 업의 결과에 따라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만약 어떤 사람이 살생을 피하고 모든 생명체에게 자비롭고 자비로우면, 그는 다시 태어났을 때 장수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살생과 폭행을 즐기는 버릇이 있다면, 그는 다시 태어났을 때 단명하거나 여러 가지 병을 앓

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화를 잘 내고 짜증을 내며 악의와 분노로 가득한 삶을 산다면 그는 다시 태어났을 때 추한 용모를 지닐 것이며, 부드럽고 친절을 산 사람은 다시 태어났을 때에 용모가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장수멸죄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업의 일반적인 의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에 상관없이 업業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다. 때에 따라 운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때 쓰이는 업의 의미는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받아야 하는 운명적인 상태’를 말한다.

업業사상은 인도 힌두교의 전신인 브라만교에서 비롯되었다. 불교에서 이 업을 차용하여 새로 발전시킨 것이 업사상이며 연기설緣起說이다. 연기설을 인연설因緣說이라고도 하며, 보통 우리는 인과응보因果應報란 말로 잘 알고 있다. 보통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뜻으로 이해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말에 의문이 생기곤 한다.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착한 사람은 당하고만 사는 것 같기 때문이다. 선함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도 않고, 악함이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만은 않는다.

연기설, 인연설

그 이유는 하나의 원인으로 하나의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다. 보통 하나의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원인들이 존재한다. 이때 중요한 원인을 인因, 보조적인 원인을 연緣이라 한다.

연기설은 이런 인연들이 얹혀 있으며 세상이 연기설에 의해 돌아간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원인 행위에 의한 결과는 복잡한 구조에 의해 시간차를 두고 벌어지기 때문에 마치 밥을 먹으면 바로 배 부르는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오랫동안 술을 마셨을 때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오랜 시간을 두고 조건에 맞을 때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연기설에 기초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볼 때 업業이라고 하며, 이 업은 지금 각각의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뜻한다.

업의 종류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원인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내 업은 무엇인가? 불교에서는 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조상업祖上業, 시대업時代業, 전생업前生業이다.

조상업은 부모의 유전자에 들어있는 DNA를 반반씩 받아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모습엔 부계와 모계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성질을 모두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외모와 기질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데, 머리가 좋거나 나쁘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성품이

착하거나 악하거나 하는 것, 어떤 부모에게서 양육 받는가에 대한 부분도 전부 조상업에 해당된다.

시대업은 어느 시대에 태어났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시대적인 환경에 태어났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탄생 국적과 해당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은 어떤지에 관련된 영역까지 모두 포함된다. 조상업이 가정환경을 말하는 것이라면 시대업은 사회환경을 뜻한다.

전생업은 전생에 심어놓은 씨앗에 의해 이생의 열린 열매를 말한다. 전생에 살아온 삶의 결과에 의해 이 생에 받는 삶이 정해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 전생업은 조상업과 시대업에도 관여한다. 왜 하필 그런 부모를 만나게 된 것인지, 부모의 많은 유전자 중에 나의 유전자가 왜 이렇게 구성되었는지, 왜 하필 이 나라 이 지역에 태어난 건지에 대한 이유가 포함된다.

업은 운명인가?

그렇다면 운명은 결정되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전생에 심어둔 씨앗에 의해 받은 열매라 할지라도 그 열매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열매는 어쩔 수 없지만 열매를 어떻게 다루는가는 우리의 몫인 것이다. 비록 업이 '자신



의 노력이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받아야 하는 운명적인 상태'라 할지라도 그 운명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개인이 만들어갈 미래의 업이다.

독실한 정진은 복보^{福報}도 빠르다

불교총지종 법장원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음악가가 있었는데 그는 여러 가지 음악을 잘 연주하였다. 그가 마침 소가 필요하여 장자의 집에 가서 소를 빌려달라고 했다. 장자는 소를 빌려주기 싫어서 그 음악가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음악을 잘 연주한다고 하니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 년 동안 연주하면 소를 빌려주겠소.”

“나는 음악을 연주할 수는 있습니다만 당신이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들어줄 수 있소.”

음악가는 매우 기뻐하며 열심히 연주하였다. 그리하여 삼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계속하였는데, 장자는 음악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자 결국 음악소리에 싫증을 내기 시작하였다. 그는 곧 제자에게 명령하여 소를 음악가에게 빌려주었다.

수행자가 도를 행하는 것도 이와 같아서, 좋은 과보를 얻는 것은 반드시 여러 겹을 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진이 독실하면



할수록 그 복보(福報)를 얻는 것도 더욱 빨라지는 것이다. (잡비유경, 雜譬喻經)

『육바라밀경, 六波羅蜜經』

주야로 부지런히 정진하는 자, 그에게 행복은 약속되리라. 근면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 그분에게 고난은 오지 않는다. 비록 젊고 힘세고 능력 있어도 게을러서 일어나 정진하지 않고 결심이나 신념이 약한 사람은 지혜에 이르는 길을 찾지 못한다.

배우기도 허물을 버리는 것도 재가하여 의견이 불일치한 이와 함께 사는 것은 매우 어렵고 즐거움을 얻기도 또한 어렵다. 출가하여 세속을 떠나는 것도 나그네의 탁발도 더욱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오로지 정진으로 성취되리라.

탐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욕정의 쾌락도 즐기지 않고 언제나 부지런히 정진하는 자, 영원히 평안한 곳에 도달하리라. 정진으로 방일을 쫓아버리고 지혜의 높은 탑에 올라갔을 때 산 위에서 산골짜기를 내려다보듯 슬퍼하는 무리를 내려다본다.

『법구경, 法句經』 불교총전 발췌

우마, 자애로운 여신의 미소

위드다르마 편집실

흔히 힌두교에는 3만 3천 종류의 신이 있다고들 합니다. 여성신, 남성신, 동물신은 물론 여러 속성이 합쳐진 신, 자연물을 형상화한 신, 심지어 특정한 신의 아바타에 이르기까지 실로 놀라울 만큼 다양한 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힌두교에서는 숭배 대상인 신을 실물의 ‘상(像)’으로 만드는 것은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힌두교가 전해진 곳에서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저마다의 개성을 살린 다양한 신상(神像)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각상도 그런 힌두 신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멋진 상입니다.

고요한 분위기와 절제미의 조화

이 조각상은 13세기 무렵 대륙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떨쳤던 크메르 제국에서 만들어진 ‘우마’상입니다. 우마는 힌두교에서 시바신의 배우자가 되는 여신으로, 특히 남편인 시바신의 자애롭고 철학적인 면모를 나타낸 여신입니다. 우마는 시바신의 여러 배우자들 중에서도 이상적인 아내와 어머니의 모습을 형상화하였기 때문에 부드럽고 온화한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몸을 살펴보면 상체가 완전한 나신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아담하지만 분명하게 솟아오른 가슴과 잘록하게 들어간 허리는 이 상이 여성의 신체를 표현한 것임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자세는 비교적 경직되어 있습니다. 다리 아래가 깨져 나갔지만 양쪽 다리에 동일한 무개를 신고 서 있음을 알 수 있고, 몸 전체에서 움직임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두 팔 역시 대부분 깨져 나갔지만 원래는 비교적 각진 어깨 밑으로 곧게 뻗어 있었거나 혹은 앞으로 살짝 내밀어 무언가를 잡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머리와 몸의 뒤쪽이 편평한 편이어서 다소 기둥 같은 느낌을 줍니다.

무엇보다 이 상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얼굴입니다. 편안하게 두 눈을 감고 입꼬리를 살짝 올린 모습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마치 깊은 명상 끝에 깨달음을 얻고 자신도 모르게 빙그레 웃는 모습 같기도 하고, 깜빡 단잠에 든 채 기분 좋은 꿈을 꾸며 슬며시 미소 짓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상적인 배우자, 왕비의 이미지

흥미롭게도 우마 상의 얼굴이 자야바르만 7세의 첫 번째 왕비였던 자야라자데비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마, 캄보디아 크메르 제국 13세기, 사암, 높이 82.0cm, 구4431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 추천 소장품, 노남희〉 제공

실제로 동시대 크메르 비문(碑文) 중에는 신상을 만들면서 왕이나 왕비의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언급한 경우가 종종 전합니다. 우마 상의 경우 ‘세계의 주인인 시바신의 이상적인 배우자’라는 정체성은 세속사회에서 ‘군주의 배우자인 왕비’가 가져야 할 덕목이자 지향점이었습니다. 세속의 권력자들은 종종 이렇게 가족관계로 맺어진 힌두교 신들의 관계에 자신과 가족들을 투영하고 이를 조각으로 남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찬미의 나라〉

정완영 작사, 박범훈 작곡,
성의신 해금 연주

묘원화 전수

벽룡사

찬미의 나라

박범훈 작곡 / 정완영 작사

Andante 굿거리 ♩ = 72 경쾌하고 환희롭게

1. 부 처 님은 어 디 계 실 까
2. 부 처 님은 어 디 계 실 까

5
저 높 은 산 에 계 실 까 저 넓 은 바다 에 계 실 까
높 푸 른 하늘에 계 실 까 두 터 운 땅 에 계 실 까

9
아 날 세 내 가 슴 에 와 계 - 시 네
아 날 세 내 가 슴 에 와 계 - 시 네

12
꽃 들 도 합 장 을 하 고 - 우 리 들 배 례 드 리 - 니
풀 끝 에 이 슬 오 르 고 - 못 새 들 노 래 부 르 - 니

16
한 오리 향 연 저 - 념 어 - 이 자 리 에 와 계 - 시 네
온 세 상 찬 미 의 나 라 - 이 천 지 에 와 계 - 시 네

20
나 무 아 미 타 불 나 무 - 관 세 음 보 살 - -
나 무 아 미 타 불 나 무 - 관 세 음 보 살 - -

Copyright ©2017. 3. 9. 묘원화

〈찬미의 나라〉는 정완영 시인의 노래답게 불국토를 눈에 그리듯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가사에서 부처님이 이미 내 가슴에 와계심을 알려주어 부르는 이로 하여금 환희심을 극한까지 끌어 올린다. 곡을 작곡한 박범훈은 처음엔 불교 의식에 사용되는 웅장한 느낌의 기악 반주 찬불가를 주로 작곡했었으나 찬불가가 좀 더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활 찬불가를 고민했고, 그렇게 탄생한 노래가 바로 〈찬미의 나라〉이다. 따라서 이 노래는 피아노 반주와 잘 어우러지며 아기자기하고 경쾌한 분위기 속에서 환희로운 느낌을 준다.

〈찬미의 나라〉는 성의신 해금 연주가의 3집 앨범 ‘열두 송이 연꽃노래(2007년)’에 수록되기도 했다. 성의신 연주가는 최고의 불자 예술가로 2019년에는 천태종의 천태예술단장을 맡아 대규모 교성곡 묘법연화경 ‘묘음으로 피어나는 하얀 연꽃’을 기획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예술감독으로 참여해 단양 구인사에서 공연했다.

이러한 성의신 연주가의 3집 앨범은 재즈와 국악이 어우러진 흠 잡을 데 없는 클로스오버를 보여준다. 또한 성의신 연주가가 매우 아끼는 찬불가 음반이며 찬불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현대 불교음악과 자신만의 소리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엿보인다. 그 결과물로 성의신 연주가는 4집 ‘미래회상’으로 2010년 KBS 국악대상에서 대상, 불교계에서는 대원상과 행원문화상을 수상했다.

있었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까맣게

헛헛한 가슴안
가끔씩 형상도 없이
일어서는

알 수 없는 이 울렁임들

갑자기 일어서는 사람
그 느닷없는 머릿속의
뒤섞인 시간들

가끔씩 이런 혼돈은
하루의 올라미가 되어

나를 세워두기만 한다

난 가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이 하루에 서성인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옥경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얼마 전에 지인의 부탁으로 2박 3일 묵을 숙소를 알아보게 됐다. 극성수기도 지났고 주말도 아니라 그리 어렵지 않겠거니 했는데 웬걸? 바닷가 펜션은 물론 민박도 초만원인데다 가격도 상상 이상이다. 바닷가를 벗어나면 좀 여유가 있겠지 했던 생각에도 비상이 걸렸다. 계곡을 따라 즐비한 펜션도, 민박도 빈 방이 없을 뿐 아니라, 취사시설이 없다거나 공동 화장실을 써야 한다거나 건물이 낡고 외져서 외면당했음직한 몇 곳도 부르는 게 값이다. 더 놀라운 것은 방이 남아 있는 곳의 요구사항이었다. 2박 이긴 하지만 1박을 한 다음날 아침 일찍 방을 비우라는 것이었다. 낮에 방에 있으면서 에어컨을 틀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설이 열악한 거야 시골 정취를 맛본다는 자기 위안도 되겠지만 터무니없는 가격에, 주인의 기고만장까지 참아낼 까닭이 없다.

하루 종일 차를 몰고 다니며 발품을 판 끝에 간신히 숙소를 구하기는 구했다. 바닷가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산속에, 지인이 부탁한 대로 거실과 방이 있는 펜션이 아니라 민박의 작은방 두 칸을 꽤 비싼 가격에 말이다. 전화로 지인의 동의를 얻은 일이고

지인도 다행이라며 고마워했지만 돌아오는 내내 마치 내가 바가지라도 싼 것처럼 미안한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더 많은 날을 빈 방으로 놀렸으면서, 그리고 똑같은 방을 내어주면서 성수기라고 해서 돈을 더 올려 받는 건 무슨 논리인지 납득이 잘 안된다. 이용객이 많은 덕분에 모든 방을 하루도 쉬지 않고 손님을 받았다면 그로써 만족하고 감사할 일일 텐데 가격을 올리는 것도 모자라 더러는 갑질을 일삼는 주인들도 없지 않으니 말이다. 올해는 바가지 상흔을 잡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팔을 걷고 나섰다지만 아직도 한 달 벌어서 1년을 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도는 걸 보면 그만큼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이 많다는 얘기 같다. 과장된 말이겠으나 얼마나 많은 폭리를 취하면 한 달 만에 1년을 해결할 엄청난 수입을 올리겠는가.

낮 뜨거운 일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뒷박만한 방을 탔하기는커녕 더운데 고생했으니 식사라도 함께하자는 지인의 청도 있었고, 나 역시 반가운 사람에게 저녁 한 끼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아는 횡집에 예약을 했다. 횡감도 싱싱하고 곁들이 음식도 푸짐한 데다 주인 내외가 친절하고 씩씩해서 가끔이지만 즐겨 찾는 집이었다. 하지만 발등은 믿는 도끼가 찍는다던가. 예약시

간에 맞춰 갔는데도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그 더운 날, 폭 폭 찌는 더위를 견디며 바깥에서 30분을 기다려야 했으며, 치워 지지도 않은 자리에 앉아 20분을 더 기다려서야 주문한 음식을 배식(!) 받을 수 있었으니. 나까지 어른 다섯 명에 초등학생이 둘 이라 모듬회를 왕특대로 부탁했는데 양은 평소의 특대 사이즈나 될까 말까, 젓가락질하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였다. 생선회 못지 않게 환영을 받던 명게, 소라, 생선구이, 새우튀김, 생선초밥 같은 주연급 곁들이 음식이 사라진 식탁 위에는 묵은 김치와 해초 무침, 고추장아찌, 오이 피클, 옥수수 샐러드, 메추리알, 상추와 마늘 고추가 고작이다. 상추 몇 장을 더 주면서 3천 원 추가요금을 받고 소주나 맥주도 6천 원씩이나 올려 받으면서 옥수수 샐 러드를 더 먹고 싶다는 아이의 청에 세 번씩이나 부탁을 했건만 공짜라 그런지, 무책임한 아르바이트생이라 그런지 네네 대답만 하고 감감무소식이다. 아이는 입이 나오고, 유쾌할 수 없는 분위기 에 나는 그만 죄인이라도 된 양 좌불안석일 수밖에.

지인을 등 떠밀어 내보내고 계산대로 가니 그제야 주인이 아는 체를 한다. 금방 부자가 되겠다는 내 말에 주인은 코로나19 때 문에 손해 본 일이며 인건비, 식재료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 기를 변명처럼 늘어놓는다. 단골이니 상추 값 3천 원을 빼 주겠 다는 선심에, 다음에 오면 잘 해주겠다고 문밖까지 따라 나와 인

사를 했지만 엮일러진 물이다. 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들끓는 지금 같은 때, 박리다매로 매상도 올리고 손님들에게 후 한 인상을 남기면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저 사람 구경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코 빠뜨리고 있던 얼마 전의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많이 팔고 더 많이 남기겠다는 알팍한 심보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여름 특수를 누리는 건 좋다. 그러나 모처럼 여행길에 나선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일은 비겁하다. 제 멧에 겨워 스스로 제 무덤을 판다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란 말인가.

입장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지는 게 사람인가 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속 챙기기에 급급해지는 모양새가 마치 정해진 코스 같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치솟는 집 값이 서민들 등골을 빼먹는다고 분노하면서 갭 투자로 부를 쌓는 투기꾼과 이를 수수방관하는 정부를 맹비난한다. 그러다가 막상 작은 집이라도 장만하게 되면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고, 오른 집값에 환호하고, 그 집을 발판 삼아 갭 투자에 팔을 걷어붙인다. 간절한 소망을 욕심으로 바꾸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

민원을 빌미로 해당 기관이나 담당 부서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를 해대고 사무실까지 출두해 고래고래 언성을 높이는



사람이 있었다. 잦은, 그리고 격한 언행에 비해 그의 민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많았는데 특이하게도 종류 불문, 인쇄물에 대한 집착이 유독 강했다. 글자가 틀렸네, 어디가 잘못됐네, 작은 것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자질 부족이다, 근무 태만이다 하며 담당자를 닦달하기 일쑤였다.

시달리다 못해 담당자가 민원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문서로 보내 줄 것을 정중하게 부탁했더라. 그런데 그가 보내 온 답신이 놀라웠다. 엉망진창인 맞춤법으로, 뒤죽박죽인 문장으로 조목조목 잘못을 지적하고도 모자라 인신공격성 전화를 멈추지 않는 그에게 담당자가 물었다. 선생의 글에는 왜 그렇게 틀린 게 많으냐고.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사적인 글인데 틀릴 수도 있지 뭘 따지냐고, 그래도 되는 거 아니냐고. 당당한 그의 목소리에 담당자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정치권의 아전인수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소수 정당일 땐 다수 정당의 독재를 비난하지만, 다수 정당으로 자리를 바꾸어 앉게 되면 준엄한 민심 운운해가면서 자신들이 비난했던 다수 정당의 독재를 답습한다. 힘이 생기면 얼굴도 두꺼워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복(公僕)이라는 본분조차 까마득히 잊히는 모양이다. 민생보다 당리당락이 우선이고 야합과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정권 다툼도 마다하지 않으니 말이다.

『법구경』에 ‘논밭은 잡초의 해침을 받고, 사람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의 해침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다. 오늘 나를 해치고 있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어지럽히는 일은 아닌지…. 묻자, 그리고 답해 보자.

마음의 여백

지장 스님

청주 용화사 연수원장

예전 한 방송사 오디션 프로에서 정동원이라는 나이 어린 소년이 불러 유명해진 노래가 있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 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에 훈장이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에 흔적

청춘은 붉은 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거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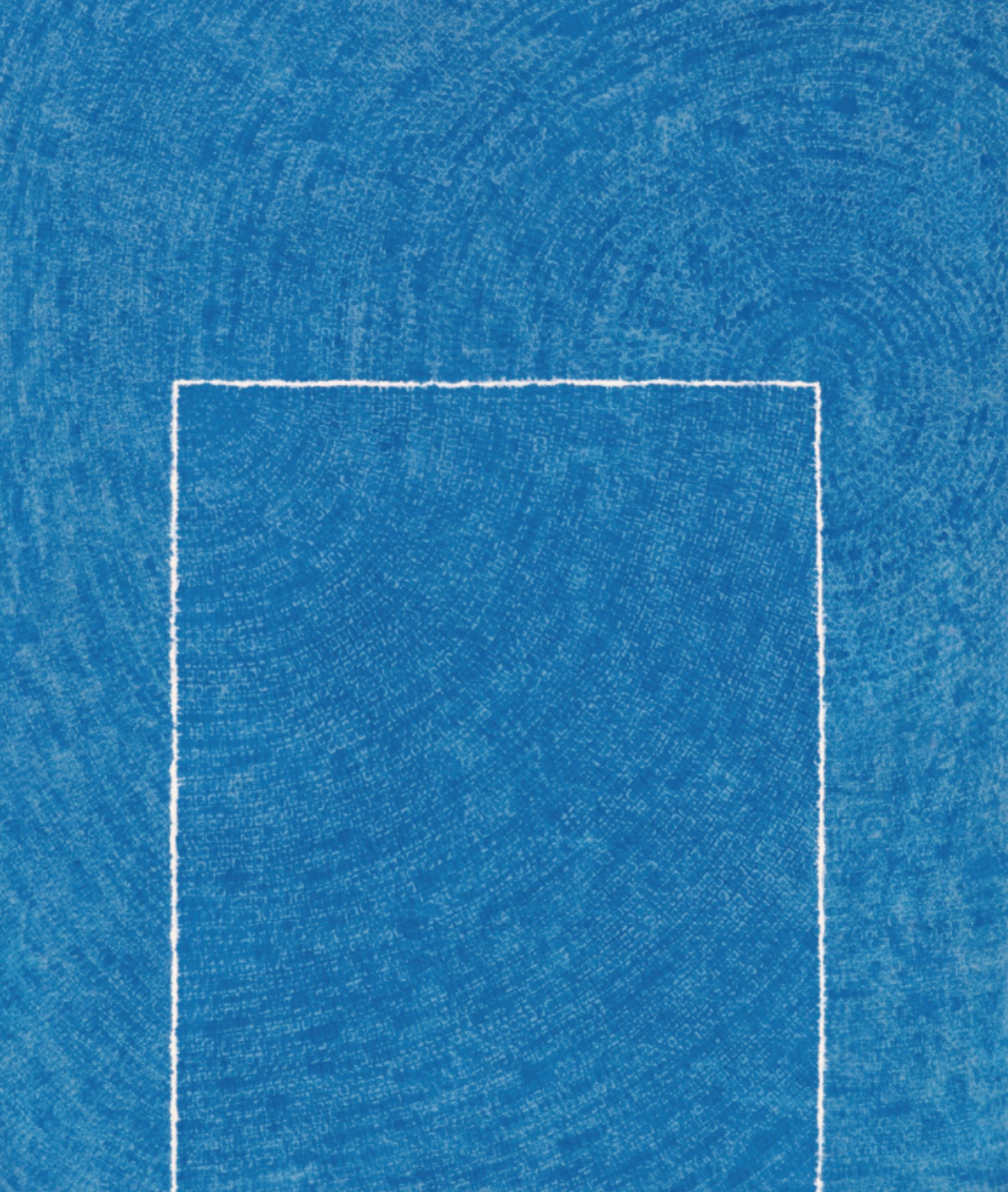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랬네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은 아름답게 피우리라.”

김종환님이 작사 작곡한 ‘여백’입니다. 노래도 잘 불렀지만 짧은 노래 가사 속에 우리네 인생의 진면목을 반추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은 어디까

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솔직히 독립적으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구요. 아마도 늘 빠르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아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분명하지 않지만 마음이 사랑, 행복, 슬픔, 고통 등을 빚어내는 것은 확실합니다.

마음이 빚어내는 내용들은 아쉽게도 나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습관과 기억, 주위환경, 몸의 컨디션, 뇌의 생물학적 과정 등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 혹은 ‘내 것’이라고 단정 짓지 못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마음이 주인이라면 그냥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되거나 혹은 마음만 바꾸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지요.

마음의 내용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진행됩니다. 직접적으로 내용 자체가 때론 불편하고 불만족스럽기도 하지만 이런 무의식적인 의식의 흐름과 주변 상황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도 불편하고 불만족스럽습니다. 반면 주변 상황이 내 안에 흐르는 고유한 의식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때 우리는 만족, 편안함을 느낍니다. 내 안에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흐르는 이런 의식의 흐름을 업력(業力)이라고 부릅니다. 업력은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형성되어 갑니다.



김환기, 고요

세상은 알거나 모르는 무수한 관계 차원으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내 마음대로 통제되는 것도 아니며, 서로 다른 압력들이 매 순간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들 각자는 자신의 통제력이 더 넓어지기를 갈망합니다. 그것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통제력의 주도권을 누가 쥐었느냐에 따라 갑을 관계가 맺어집니다. 흔히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생활은 그다지 자유롭지 못합니다. 통제력이 없으면 피곤하고 불만족스럽지요. 이런 상황이 만성화되면 앞의 노래 가사처럼 자신을 충전할 시간도 마음의 여백도 없어집니다.

더 근원적인 원인은 마음이 빚어내는 온갖 내용들을 적절히 걸러내지 못하고 그것들에 쫓겨 살거나 혹은 그것들을 쫓아서 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그림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와 같습니다. 살다 보면 어쩌다 세상만사 욕심 속 물감의 장난으로 깨달아질 때도 있습니다. 철들은 거지요. 그 때가 되면 좀 여유로워질까요? 알아도 기존 압력의 힘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철들이 제대로 찾아왔다면 화려한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삶을 갈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아름다움은 당연히 물질적인 차원은 아닐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

나도 그러한가

유소림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한국여성민우회 편집실장
주간 내일신문, 미즈엔 편집위원 역임
『녹색평론』 시와 산문 발표 다수
저서 〈신주쿠 시궁쥐 비둘기〉, 〈퇴곡리 반딧불이〉등

꾸고 꽃 피워보고 싶어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은 나와 타인, 나와 환경, 몸과 마음, 세상의 순리 등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때 빛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을 것인가 애쓰기 보다는 어떻게 관계를 잘 맺을까 애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만이라도 어떤 관계들을 맺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시겠어요? 처음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관계의 장애들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업장(業障)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 이런 장애들을 만들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신념과 가치기준이 세상의 중심도 아니며, 틀릴 수도 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단지 나도 모르게 형성된 행동양식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업장은 느슨해 질 것입니다. 한 가지를 강력히 믿으면 다른 것을 못 믿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 것도 안 믿으면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여백은 새롭게 얻어지는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관계들을 좀 더 넓게 좀 더 조화롭게 아우르는 마음의 시선이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옛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싯다르타 태자가 동문 밖에서 늙은이를 보았다. 남문 밖에서는 병든 사람을 보았다. 그리고 서문으로 나가 상여를 보았다.

태자는 이 광경을 보고 마부에게 물었다. “나도 저들처럼 늙고 병들고 죽는가?” 충직한 마부는 이렇게 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왕자님께서도 장차 그렇게 되십니다.”

이 일화를 두고 오쇼는 이렇게 찬탄한다. “어떤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곧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이 놀라운 지성을 보라.”

우리는 무엇을 듣고 보면 그것은 남의 일이라니 한다. 친척들이 모였다. 어느 재벌가의 갑질이며 꼴불견 정치인이 화젯거리로 나온다. 분노 어린 비난이 시작된다. 열기가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로, 세계로 퍼져 나간다. 미국, 일본, 중국의 탐욕이 난도질당하다가 급기야 통일을 둘러싸고 의견대립이 생긴다. 목청이 높아진다.

세상에 살고 있으니 당연히 세상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내 속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나를 돌아볼 수 있다면 더욱 좋

지 않겠는가. 내 속에는 거만함이나 탐욕이 없는가. 세상의 시끄러움에 나는 일말의 책임도 없는가.

수련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이런 반응을 만나기도 한다. 아, 그거, 우리 남편 가라고 하면 참 좋겠다, 좋은 것 같긴 한데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을까. 남편이 마음공부를 하면 좋지만 내가 하면 더 좋다. 남들 문제도 다 해결하면 좋겠지만 우선 자신의 문제만이라도 해결되면 그만큼 남들에게도 좋다.

스승의 강의를 떠올린다. “노병사^{老病死}라는 인간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싯다르타의 문제의식, 그것이 불교의 물꼬를 튼 것입니다. 이 문제의식은 또한 여러분의 문제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녹야원에 가서 3개월에 60명의 아라한을 만들어내십니다. 이 60명의 아라한을 남의 이야기로 여깁니까? 이 60명의 아라한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목동이 남의 소만 헤아리고 있어 서야 되겠느냐.

각자 힘껏 꽃을 피운 개모마일이 아름다운 꽃밭을 이루었다. 이 지극한 꽃잎들이 향그러운 차가 되어 인간의 몸을 따스하게 한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도 그리한가. 나는 어떠한가. 나는 나의 소를 헤아리고 있는가.



가을밤의 단상

강만문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

聞禮庭前聽說親 예를 배우던 뜰 앞에서 선친 말씀 직접 들으니
 奉恩寺裏出遊頻 봉은사에 자주 가서 공부했노라 하시었네
 餘生孤露頭成雪 부모님 여의고 홀로 남은 이 목숨 머리가 온통 센 채
 此地斜陽淚滿巾 바로 그곳에서 지는 해를 보노라니 눈물이 수건을 적신다
 欲訪前塵無老宿 당시의 일 묻고자 해도 연로한 승려가 없고
 祇殘遺墨記壬辰 그저 임진년이라 쓰인 유묵만 남아 있구나
 躊躇重繞東門柱 머뭇머뭇 동쪽 문 기둥을 자꾸 배회하노라니
 古樹悲風吹向人 오래된 나무에서 서글픈 바람이 불어오누나

- 목만중(1727~1810), <여와집(餘窩集)> 권5

위는 목만중이 58세가 되던 1784년에 봉은사를 방문하여 지은 시이다. 저자는 어릴 적에 부친에게 교육받으며 부친이 젊은 시절 봉은사에서 공부했던 이야기를 들었다. 그 기억은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퇴색되지 않고 오히려 저자를 그 공간으로 이끈다.

사찰 경내를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28년 전에 세상을 떠난 선친의 젊은 시절을 상상해 본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당시 이곳의 선친을, 저자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젊은 시절 선친의 모습으로

치환해 보지만 당년 선친의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선친의 흔적을 찾아다니던 저자에게 72년 전 선친이 남긴 필적이 눈에 들어온다. 단순히 성명과 기록 시기에 대한 내용에 불과하지만, 임진년 중추 어느 날의 환한 달빛과 그 아래에서 낭랑하게 글을 읽는 서생의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다. 당시 이곳의 선친뿐만 아니라, 선친이 이 세상에 존재했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해주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인다. 차마 발길을 뗄 수 없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사람들은 소중한 존재를 잃게 되면 처음에는 그와 공유했던 일상적인 공간 속에서 그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슬퍼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흘러 그 공간에 다른 기억들이 차면 어느덧 그곳에서의 그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려 해도 쉽사리 떠올려지지 않는다.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가 전부였던 공간에 이제는 그가 없다. 소중했던 사람이기에 그가 떠오르는 것도 고통이고 그가 떠오르지 않는 것도 고통이다.

이제는 희미한 그의 모습을 떠올리다 어릴 적 어렴풋한 기억의 한 자락을 뒤적여 봉은사에 간 것도 그런 이유였으리라. 봉은사에는 온통 선친만 존재했고 선친의 목적이 있기에 반가웠다. 허나 눈앞에 있는 것은 결국 한 그루 고목과 저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듯 부는 처연한 바람 한 줄기뿐이었다.

목계지덕^{木鷄之德}의 교훈 이야기

탁상달

시인, 문학평론가
전 동해중학교 교장

목계지덕은 BC 290년경 전국시대의 사상가인 장자의 <달생^{達生}> 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투계를 좋아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기성자^{紀渚子}라는 사람에게 최고의 싸움닭을 구해 최고의 투계로 만들도록 훈련을 맡겼습니다. 맡긴 지 열흘이 지나고 나서 왕은 기성자에게 물었습니다.

“닭이 싸우기에 충분한가?” 기성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닭이 강하긴 하나 교만하여 아직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교만을 떨치지 않는 한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열흘이 지나 왕은 기성자에게 또 물었습니다.

“이제는 닭이 싸우기에 충분한가?”

“아직 멀었습니다. 교만함은 버렸으나 상대방의 소리와 그림자에 너무 쉽게 반응합니다.” 또 다시 열흘이 지나 왕이 또 기성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성자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조급함은 버렸으나 상대방을 노려보는 눈초리가 너무 공격적입니다.” 다시 열흘 즉 40여 일이 지나 왕이 묻자 기성자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마음의 평정을 찾았습니다. 나무와 같은 목계^{木鷄}가 됐습니다. 이제 어느 닭이라도 모습만 봐도 도망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자가 말하는 목계지덕은 싸우지 않고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기성자의 대답을 통해 우리는 싸우지 않고 싸움에서 이기는 비법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면 더 이상 강해지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에는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자는 강한 것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 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강한 것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지만 최고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에게 너무 쉽게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였는데 상대방에게 너무 쉽게 자신의 감정이 드러내기 때문에 싸움에서 불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자는 싸움닭이 상대방의 소리와 그림자에 쉽게 반응하는 것은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 판단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누구나 약점을 드러내놓고 싸우는데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상대방에게 적개심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신에게 싸우고자 덤벼드는 대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싸움을 걸어오면 지든 이기든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부딪힌다는 것은 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싸워야 하는데 적이 많다면 승리할 확률은 전무합니다. 때문에 기성자는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상대방의 투기를 건드려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쓸데없는 곳에 힘을 쓰게 되면 정작 필요할 때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싸움의 상대를 외부의 적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두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제어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마음의 평정입니다.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

람이 상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승자들은 한결같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이긴 사람들이며, 아울러 패자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적당히 타협하거나 굴복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가리켜 어른들은 의지가 약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아이들은 의지가 약한 아이들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왜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다운 어른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계지덕을 통해 어른 같은 어른, 지도자다운 지도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양식 있는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울타리를 벗어나라

법상 스님

부산 대원정사 주지
유튜브 '법상스님의 목탁소리' 운영자
마음공부 공동체 '목탁소리' 지도법사

예전 어느 신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교인구가 8천만 명이 넘는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만큼 부풀리기도 쉽고 또한 정확히 집계 내기도 어려운 것이 종교 신자 현황이다. 또한 나라에서도 매년 종교별 인구분포를 데이터화해 내고 종교계에서는 그 숫자에 촉각을 곤두세우곤 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진리에는 울타리가 없다. 내 것 네 것이 없고, 내 종교 네 종교의 차별이 없다. 불법^법이라는 울타리를 쳐 놓고 그 안에 있는 이들만이 불교신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불법의 이해이다. 『금강경』에는 ‘불법이란 불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불법이다’라는 말이 있다.

즉 불법에는 고정된 어떤 실체도 있지 않다는 말이다. 불법이라는 틀, 불법이라는 상까지도 타파했을 때 비로소 참된 불법이 드러난다. 그래서 불교를 실행하는 불자들은 스스로를 ‘불자’라는 틀에 가둬선 안 된다. 우리가 불교를 믿고 신앙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지 그것이 불교이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참된 불자라면 그 어디에도 걸려선 안 된다. 한없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불교라는 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진리라는 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을 때 비로소 불법을 바로 보고 실천할 수 있다. 불교를 버렸을 때 비로소 불교인 것이다.

불교 신자는 생명 있고 없는 일체 모든 존재이고 생명이며 우주법계 그 자체다.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 원불교 신자, 이슬람교 신자, 그리고 종교가 없는 그 모든 이들이 우리의 신자이다.

이 모든 존재와 생명이 그대로 진리의 신자이며, 진리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좋은 도반들일 뿐이다.

이것이 이 세상의 종교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진리인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의 보편적이고 온전한 가르침인 것이다.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다만 이름이 기독교일 뿐이고, 불교는 불교가 아니라 다만 그 이름이 불교일 뿐인 것이다.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불법이다.

- '법상 스님의 목탁소리' 공식 카페

진정한 명품

방귀희

사)한국장예예술인협회 대표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불교충지중 사회복지재단 이사
 <E美지> <순대평론> 발행인
 저서 : <불교의 복지사상> <배제와 포용>
 <상상한 메시지를 팝니다> 등

물건을 사면 담아주는 쇼핑백을 명품 브랜드가 찍혀있다는 이유로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의 단편소설 <목걸이>라는 작품이 떠올랐다. 사치스럽고 허영심이 많은 마틸드라는 부인 때문에 생긴 사건이 주요 내용이다. 그녀는 상류층의 삶을 동경했지만 그녀의 남편은 하급 공무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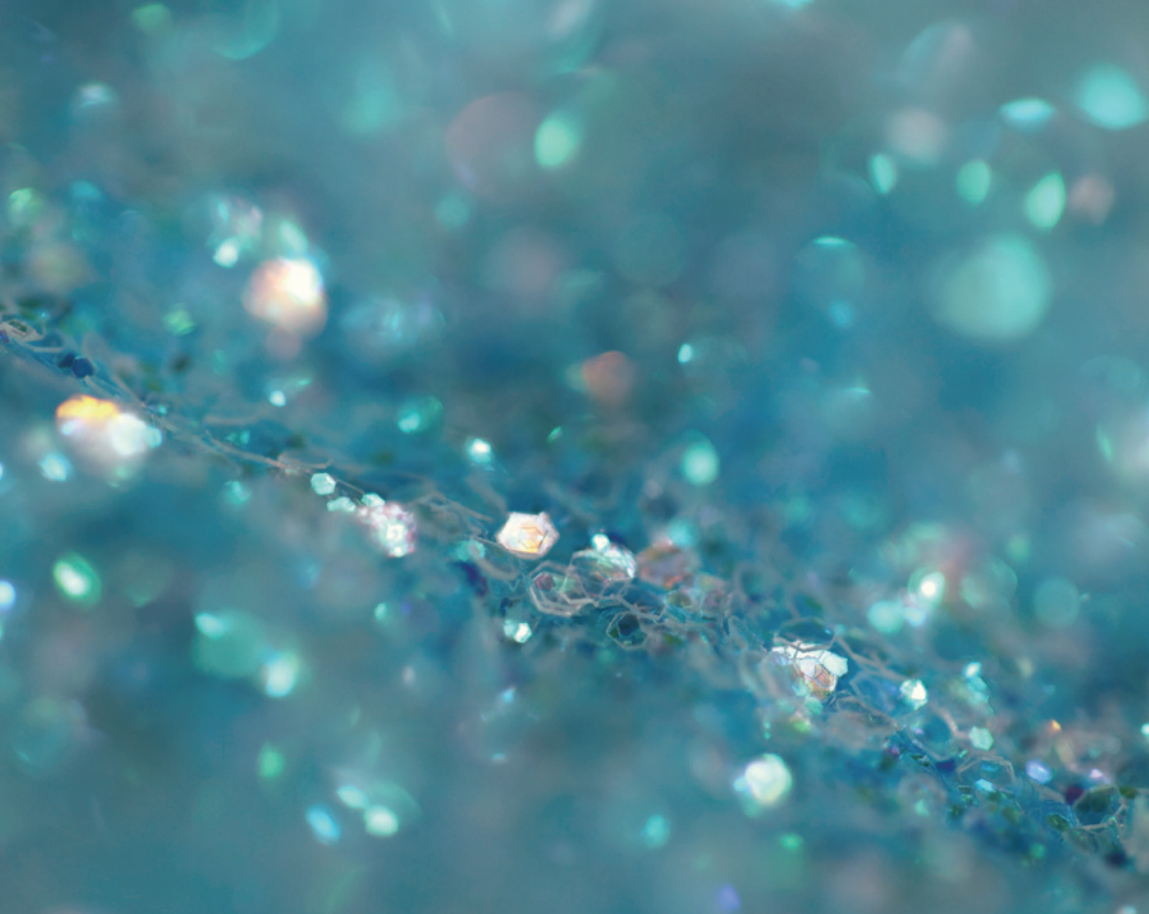
어느 날 남편이 파티 초대장을 부인에게 건넸다. 남편은 아내가 무척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으스스대며 초대장을 내밀었지만 부인은 시무룩하였다. 파티에 입고 갈 옷이 없다고 투덜댔다. 남편은 모처럼 비싼 옷을 사주었다. 그런데 부인은 짜증을 냈다. 이번에는 보석이 없다는 것이었다.

부부는 고민 하다가 부잣집 친구의 목걸이를 빌렸다.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 파티에 참석할 준비를 마치고 나서야 마틸드는 기분이 좋아졌다. 부부는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목걸이가 없어졌다. 부부는 파티장으로 가서 구석구석 살펴보았지만 목걸이를 찾지 못했다.

부부는 할 수 없이 빚을 내어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목걸이주인에게 돌려주었다. 부부는 빚을 갚기 위해 10년 동안 고생을 하였다. 마틸드는 막노동도 해야 했다. 빚을 다 갚은 후에야 마틸드는 목걸이주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그러자 깜짝 놀라며 “그 목걸이 가짜였어요. 500프랑 밖에 안해요.”라고 말해주는 것이었다. 마틸드가 파티에 가기 위해 구입한 옷값이 400프랑이니 마틸드 부부가 감당하지 못할 액수는 아니었던 것이다.

명품을 좋아했던 부인이 치룬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지금 우리 사회에는 명품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여유가 없어도 카드로 일단 명품을 사고 카드빚에 시달리다가 월급을 차압당하여 결국 직장을 잃은 사람 등 사례를 들자면 너무나 많다.

그런데 모파상은 왜 목걸이를 가짜로 설정하였을까? 요즘도 너무 큰 다이아몬드는 금고에 넣어두고 진품이 아닌 이미테이션으로 치장을 한다고 들었다. 모파상은 인간의 허영심이 사람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지 말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명품을 사서 치장을 해도 그것은 잠시 일뿐 비싼 돈을 들여서 명품을 구입해도 그것이 사람 자체를 멋있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마케팅 학자들은 “명품은 상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 즉 이미지에 있다.”고 하면서 수공업 시대에는 물건이 없어서 상품 자체에 가치가 있었지만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이 되면서 상품이 많아지자 소비자는 이미지의 가치를 구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명품의 명품 즉 한정판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허영심을 부추길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이는 인간의 욕망을 이용하여 인간을 미성숙한 존재로 하락시키는 일종의 상술이다.

마틸드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검소한 모습으로 파티에 갔다면 공무원 부인답다는 칭찬을 받았을 것이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당당하다. 그 당당함은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고귀한 아름다움이 된다. 치장이 아닌 참모습이 명품인 것이다. 그래서 명품은 사는 것이 아니라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눈에 보이는 허상을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고 하였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싶지 않은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하다가 논쟁이 벌어진 다. 허상은 이렇듯分別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소설 <목걸이>의 마틸드는 친구가 부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녀의 목걸이를 진품이라고 믿었다. 그것이 곧 허상이다. 목걸이 자체가 귀했던 것이 아니라 친구의 재력이 부러웠던 것이다. 이렇게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허무한 일인지 알 수 있다.

이제부터 명품을 사는 대신 나의 언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내 인생 자체가 고귀한 명품으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소유하는 행복 나누는 기쁨

남해 정사
단음사 주교

어느 날 코살라국의 파세나디왕이 부처님에게 후계자 없이 죽은 거상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상인은 순금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싸라기밥을 먹고, 낡은 수레를 탔으며, 남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었다고 한다. 파세나디왕의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남을 위해서 재산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살수가 없다.”고 하셨다.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불교에 대해 잘못알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불교는 재산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을 장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물질적인 부유가 불교의 교리에 어긋난다고 믿는 일부 사람들의 견해이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재산의 축적을 위한 노력을 제한하기보다 부유해질 수 있게 노력하도록 장려하고 격려하셨다. 또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각자의 분야에서 정진 노력해야 한



다고 하셨습니다, 성공을 이루려는 마음은 자신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하시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말고 모을 수 있는 한 많은 재산을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유해지기를 바라셨는데 이를 위해서는 계율을 지켜야하며 소유한 재산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자유와 모을 수 있는 재산의 양에는 제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재산을 모으기 위한 수단과 방법 그리고 목적에는 제한과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자연을 이용하기를 꿀벌이 꿀을 따듯이 하여야 한다. 꿀벌이 꽃의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다치게 하는 일이 없듯이, 사람도 자연을 이용할 때는 자연을 다치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렇듯 재산을 모으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대방을 거짓으로 속이거나, 상대방을 착취하지 않는 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꿀을 모으되 꽃을 다치지 않게” 재산을 모아야 한다.

또한 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면 바른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바른 노력과 기술, 그리고 적법한 방법으로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은 그 재산을 스스로의 즐거

움을 위해 쓰며 행복을 느끼고,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와 친척을 위하며 종들을 돌본다오. 또한 그는 벗들과 권속들을 위해 재산을 쓰고 가난한 이들에게 보시를 하고, 죽은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왕에게 세금을 내오. 마지막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깨달음과 자기수양을 위해 출가한 수행승들에게 공양을 한다오.”라며 올바르게 재산을 모아서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른 수단과 방법 그리고 바른 목적으로 재산을 모아 부자가 되었을 때 ‘소유하는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바르게 모은 재산을 바르게 나누어 보시와 자비를 베풀 때 ‘나누는 기쁨’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유방임 자본주의에서 수정 자본주의를 지나 소비 자본주의의 시대라고 한다. 소비 자본주의의 특징은 자신에게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제품이 마치 꼭 필요한 제품인양 소비되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인터넷, 핸드폰, TV를 통해 소비를 부추기는 수많은 광고들을 접하고 있으며 고가의 명품을 필수품인양 소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바른 경제관념을 지니고, 소유하는 행복과 나누는 기쁨의 바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사)한국불교학회 법인이사, 상임고문
 80여 편의 논문 발표, 20여 권의 저·역서 발간
 〈원효의 판비랑론 기초연구〉 등 3권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승량, 그 생애와 사상의 분석적 탐구〉
 한국연구재단 10년 대표 연구 성과 선정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미운 짓을 하는 아이에게는 회초리를 들고서 야단을 쳐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런 아이에게 오히려 더 잘 해 주라는 교훈이다.

불전에서 번뇌를 분류하는 방식이 여럿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삼독의 분류다. 삼독이란 탐욕, 분노(진에), 어리석음(우치)의 셋이다. 이 가운데 감성적 번뇌인 ‘탐욕’과 ‘분노’는 그 방향이 상반된다. 탐욕은 나를 향해 끌어당기는 감성이고, 분노는 나로부터 밀쳐내려는 감성이기 때문이다. ‘미움’은 분노의 일종이다. 내가 보기에 그 아이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해서, 나에게 그 아이에 대한 미운 마음이 가득하기에, 그 아이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이 마땅한데 이 속담에서는 그 아이에게 오히려 떡을 하나 더 주라고 한다. 내 마음과 상반된 행동을 하라는 것이다.

그 아이가 내게 미운 짓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아이에게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또는 이유 없이 그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이 나에게 밋게 보일 수도 있다. 미운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거나 야단을 치면, 미운 짓이 일단 그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강아지를 조련하듯이, 상賞과 벌罰을 적절히 섞어서 아이를 조련할 경우, 그 아이가 미운 짓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억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아이는 벌 받는 것이 무서워서 미운 짓을 참는 것일 뿐이리라.

불교수행 초입에 수행자의 성격에 따라서 ‘거친 감성과 인지’를 정화하는 다섯 종류의 수행이 있다. ‘잘못된 마음을 중지시키는 다섯 가지 수행’이라는 의미에서 오정심(五停心)이라고 부른다. 탐욕이 많은 사람에게는 자기 몸이 시체가 된 후의 모습을 떠올리는 부정관(不淨觀), 분노가 많은 사람에게는 주변의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비관(慈悲觀), 마음이 산란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는 수식관(數息觀), 무아의 이치에 대해 무지한 사람에게는 오온, 십이처, 십팔계 등의 낱낱에 자아가 없음을 자각케 하는 계분별관(界分別觀), 사견(邪見)에 빠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조건에 의존해서 발생한다는 연기관(緣起觀)을 닦게 한다.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은 이런 오정심 수행 가운데 자비관과 그 방식이 같다. 내가 부당하게 그 아이를 미워하든, 그 아이가 실제로 미운 짓을 하든, 나의 부당한 ‘미워함’과 그 아이의 웬지 모를 ‘미운 짓’ 모두가 잦아들게 하는 자비관의 실천이다.

의학의 분과 학문인 신경생리학 개념 가운데 ‘역치^{閾値}’라는 것이 있다. ‘생명체가 외부 자극에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전기 자극이 신경에 가해져도 어느 정도까지는 반응이 전혀 없다가, 자극의 강도가 일정 전압에 달하면, 비로소 신경이 활성화 되어 전기가 흘러간다.

미운 아이에게 내는 자비^{慈悲}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한두 번의 실천으로 ‘나’나 ‘그 아이’의 감성과 행동에 변화가 오지 않는다. 미운 아이를 계속 자비로 대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감성의 역치를 넘어서 ‘나’와 그 아이에게 변화가 온다. 끝없는 자비관의 실천이 결국 ‘미움’을 치유하는 것이다. 상벌을 통한 조련이 아니라 미움의 뿌리를 뽑는 불교적 훈육이다.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한국전통등연구원

1996년 전통등연구회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한
지전통등을 계승하며 새로운 문화를 열어가고
있다.



PART 1. 한국의 풍속

- I. 사신
- II. 화성원행반차도
- III. 무예 24기
- IV. 전래동화

V. 시집가는 날

VI. 삼일유가

VII. 조선의 풍속

VIII. 12지신

VI. 삼일유가 (Three Days of Enjoyment)

삼일유가는 장원급제한 선비가 비단옷에 어사화를 꽃은 모자를 쓰고 사흘 동안 시험관과 선배 급제자, 그리고 친인척들을 찾아 인사하는 것을 말한다. 장원급제자가 도착하면 마을입구에서부터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며 장원급제자가 왔음을 알렸다.



우리 아이 양육 길라잡이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연합회

강남구에 60여 곳 이상 자리 잡고 있는
구립어린이집 연합



- 01 공갈젖꼭지에 집착하는 아이
- 02 고기만 먹고 채소는 안먹는 아이
- 03 잘 먹지 않거나 음식을 입에 물고 있는 아이
- 04 제자리에서 안먹고 돌아다니면서 먹는 아이
- 05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

- 06 소변을 참다가 옷에 실수하는 아이

07 씻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

- 08 이를 닦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
- 09 계절과 상황에 안맞는 옷을 입으려는 아이
- 10 스스로 옷과 신발을 벗지 않으려는 아이

07. 씻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

아침에 외출 준비 하면서 아이를 세수시키려고 하면 울음부터 터뜨린다. 그렇다고 세수하지 않고 보내려고 하니 지저분하다고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을까봐 걱정이다.

원인

- 1) 부모가 아이의 더러운 모습을 지켜보기 힘들어 아이의 상황을 무시한 채 씻기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씻기는 경우
- 2) 머리를 감거나 세수할 때 우연히 비누가 눈에 들어가 느끼는 공포로 두려워하는 경우
- 3) 춥거나 피곤하다는 핑계로 제대로 씻지 않은 경험이 반복된 경우

지도방법

- 1) 아이에게 규칙적으로 씻는 경험을 제공한다.
- 2) 인형을 이용한 목욕탕 놀이로 씻는 것은 즐겁다는 느낌을 준다.
- 3)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꾸며진 세면도구를 준비하여 제공한다.

금강계만다라

해광 정사
시법사 주교

만다라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세계를 말합니다. 또한 불보살의 세계를 종교적 상징성을 부여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기에 신앙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금강계만다라는 『금강정경』을 근거로 그려진 만다라이며, 전체적으로 9등분의 정사각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앙에 있는 성신회^{成身會}는 부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중앙에 대일여래(비로자나불)를 기준으로 동쪽(아래 원 중앙 아축불), 남쪽(좌측 원 중앙 보생불), 서쪽(위쪽 원 중앙 아미타불), 북쪽(우측 원 중앙 불공성취불)을 두고 있습니다. 한 원안에 5분이 계서 모두 25존 과 측 방향에 4분의 보살, 원 밖의 네 모테두리에 8보살을 합쳐 모두 37존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금강계만다라는 깨달은 후 중생 제도로 가는 향하문^{向下門}과 부처가 되기 위한 과정을 묘사한 향상문^{向上門}으로 표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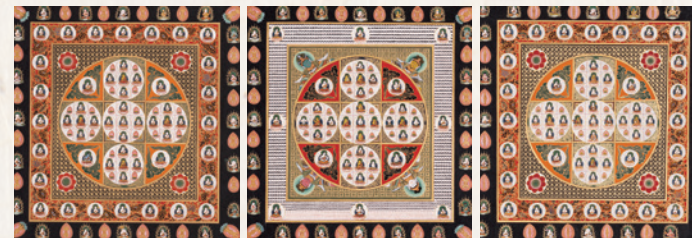
향하문^{向下門}은 중앙의 ①성신회 → ②삼매야회 → ③미세회 → ④공양회 → ⑤사인회 → ⑥일인회 → ⑦이취회 → ⑧향삼세회 → ⑨오른쪽하단의 향삼세삼매야회로 가는 시계방향입니다.



사인회

일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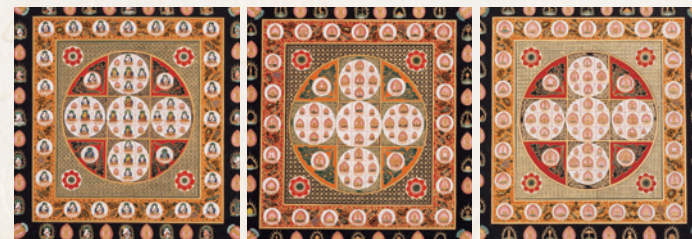
이취회



공양회

성신회

향삼세회



미세회

삼매야회

향삼세삼매야회

1. 여래가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표현.

- 결과로부터 원인을 찾아가는 것.
- 보리심의 본성인 자성의 자각을 표현.

역순인 향삼세삼매야회에서 성신회까지의 향상문^{向上門}은

2. 중생이 부처의 경지인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

- 원인에서 결과로 나아가는 것.
- 수행자의 관법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것.

9회로 이루어진 금강계만다라 가운데, 상단의 특색 있는 3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단좌측은 사인회^{四印會}입니다. 중앙의 비로자나불, 동방 금강살타보살, 남방 금강보보살, 서방 금강법보살, 북방 금강업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 상단중앙은 일인회^{一印會}입니다. 비로자나불뿐만 아니라 37존의 제존을 모두 포함하며, 수인은 지권인을 하고 있습니다.

○ 상단우측은 이취회^{理趣會}입니다. 중앙에 비로자나불대신 금강살타 보살을 주존으로 있으며, 테두리가 원이 아닌 사각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 호 정답

①㉑ 준	제	㉒ 관	음	㉓ 법		㉔㉕ 총	지	신	㉖ 문
법		자		㉗ 명	리	학			방
④ 정	유	재	란			㉙ 생	로	병	사
신		보		㉚㉛ 신	정	회			우
	㉜ 포	살		미			㉝ 연	㉞ 꽃	
㉟ 말			㊱ 망	양	지	㊲ 탄		상	
㊳ 복	㊴ 덩	이		요		㊵ 소	㊶ 구	여	㊷ 의
	굴		㊸ 근		㊹ 이		구		기
㊺ 모	나	리	자		㊻ 광	복	절		소
	무		㊼ 감	로	수		절		침

지난 호 정답에 참여해주신
박지한 일수정 장명순 장영미님 고맙습니다.

퀴즈로 알아가는 알쏭달쏭 상식

①㉓		㉒			㉑		②㉒		㉑
				③					
④	㉑		㉒						
					⑤		㉑		
	⑥								
㉒							⑦		
		㉒			⑧㉓				
⑨			㉑					⑩	㉑
			⑩						
⑫							⑬		

칸을 채워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정답란에 기재되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가로 열쇠

- ① 총지중에서 경로 효친사상 고취를 위해 격년마다 9월에 열리는 큰 행사
- ② 생김새나 행동, 마음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
- ③ '해로울 것도 없고 이로울 것도 없다'는 뜻의 사자성어
- ④ 후고구려를 건국한 한국사 유일의 승려 출신 군주로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함
- ⑤ 1957년 제1회를 시작으로 한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미인 대회
- ⑥ 다 써서 못 쓸 정도로 짧은 연필
- ⑦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온 한국의 민속탈
- ⑧ 피부 건강 및 관절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로 족발, 닭발 등에 함유
- ⑨ 태풍의 중심부에 나타나는 맑게 갠 무풍지대, '허리케인의 눈'이라고도 불림
- ⑩ 뒤주에 갇혀 굶어 죽은 영조의 둘째 아들이자 정조의 아버지
- ⑪ 한가위로 불리는 연중 가장 풍성한 명절
- ⑫ 가을철에 부는 상쾌하고 선선한 바람
- ⑬ 제주도에 흔히 보이는 검은 색을 띠는 화산암

세로 열쇠

- ㉓ '왕조의 큰 복을 빈다'는 의미로 이성계가 조선 시대에 가장 먼저 지은 궁궐
- ㉒ 불교 의식에서 쓰이는 용품, 불구라고도 함
- ㉑ 산과 바다에서 나는 진귀한 물건으로 차린 맛 좋은 음식
- ㉒ 이익을 얻음
- ㉑ 문학, 미술, 예술이 잘 발달된 로마가 수도인 유럽 남부 공화국
- ㉑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보여 주는 꿈
- ㉒ 하늘이 정해 준 연분
- ㉑ 덴마크의 수도로 북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
- ㉒ 서리를 맞아 가며 자란다고 하여 명칭이 붙은 검은 겹은 파란 콩
- ㉒ 남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좋은 목적을 가진 착한 마음
- ㉑ 이탈리아 로마 중심지에 위치한 거대 유적지로 원형 모양의 투기장
- ㉑ 불교 문화재의 걸작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석굴사원으로 국보 제24호
- ㉑ 눈 뭉치로 만든 사람 형상

불교총지중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양력
신년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종조탄신일	양력 1월 29일	해탈절 (우란절)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양력 9월 8일	창교절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중 연중 불사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중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훤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

불교총지중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홍파동)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미아동)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상봉동)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항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증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이평리)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밀교동길 6-4 (양월리)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중성리)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다경길36-19 (하구리)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감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매4길 15 (노남동)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금산리)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독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덕성 김윤서 법 공 보명심 안한수 오승현
오채원 오현준 우 인 이수영 이목중 이인성
이혜성 자선화 정화연 총지화 한철수

(사)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일동(무순)

지회) 박차봉 강영철 박영중 조덕제 옥장운
윤병재 김갑태 박종한 김상길 김인규
황규철 이정식 김영옥 이금숙 여성숙
배여진 김정순 김행숙 서순옥 서금순
박영구 조장현 박태수 김일량 장승재
본회) 최우성 조현숙 최금란 박정미 정봉채
박봉수 전제우 김진문 윤종일 김석한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총지미디어

http://www.chongji.or.kr

이메일 : news@chongji.or.kr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동백동산으로 유명한 제주 '선홍마을'은
'선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을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다정함과 따스함, 한편으로는 오늘날
이런 마음과 마을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아쉬움.

문득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흔히 쓰이고 있지만 자주 잊히는
'선홍'의 의미를.

각자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겠지만
어쩌면 '선홍'이라는 본질은
내 자신이 소중한만큼
다른 사람도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만큼 위해주는 것.
더 나아가 그러한 배려로
자신의 소중한 것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유난히 달빛이 좋던 초가을 어느 날 밤,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선한 사람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았으면,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도
여전히 사랑으로 채워졌으면...

09월호



남을 탓하지 마라
자신에게서 먼저 원인을 찾으라
모든 것은 나의 업의 소치이니라

- 환당 대중사 법어록 중에서 -